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차 품평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한국차인연합회와 한서대 정인오·장유화 교수(차학전공) 등은 최근 서울 인사동에 '한국국제차업연구소'를 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차 품평'이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차의 품질을 검사하고 등급을 정하는 것. 그 결과가 제다 방법과 차의 가격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차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차문화 연구와 교육의 장이 될 연구소를 찾았다.

객관적 평가로 우리차 국제화 기대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과정의 학생들이 한국국제차업연구소에서 국제규격에 맞는 품다기구를 갖추고 품다교육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차 품평사 자격 인증시험을 치르게 될 연구소에 들어서자 기자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600여 종류에 달하는 차였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차와 발효차 등은 물론이고 중국과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해 온 각종 차들이 학생들의 '품다(品茶)'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의실 옆에

국제규격에 맞는 품평대와 차잎 수분 측정기까지 갖춘 품평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차 품평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차 품평 자격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소 산하기관인 대한민국 차 품평위원회와 국제명차 품평위원회 그리고 중

국 절강(浙江)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증하는 차 품평 자격시험과 중국 정부가 인증하는 차 품평원고와 품평사 자격시험에 맞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국내 및 국제 차 품평 자격 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르면 내년 1월에 연구소 자체의 차 품평 시험을 치르고 2

월에 중국 절강성에서 중국 기준의 품다시험에 응시하게 될 예정이다.

이 밖에 차학 기초 교육과정과 제다 연구 과정, 한중일 차문화사 연구 과정 등 차 애호가들과 일반인을 위한 강좌도 마련돼 있다. 한국차인연합회의 교육실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학생들의 실습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산하기관으로 대

품평평가 기준을 마련해 차의 등급을 정하고 거래의 기준과 제다기술 발전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객관적인 차 품평을 통해 제다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다방법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차 선택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품다란 단순한 차의 맛이 좋고 나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차 속에 담겨진

전문인 양성위한 강의실·품평실 마련 교육 이수 후 한·중 시험 응시 자격 부여 제다방법·올바른 차 선택 기준 제시

한민국 차 품평위원회와 국제제다연구회 그리고 국제차문화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차 품평위원회는 차 품평사 자격 인증시험을 볼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국제제다연구회는 국내 제다 기술을 중심으로 녹차, 청차, 홍차 등 국내외의 각종 제다법을 연구하게 된다.

정인오 소장은 "중국이나 일본, 대만 등 세계적인 차 생산국들은 차에 대한

절대적 값어치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시음회 수준이 아닌, 국제 기준에 맞춘 품평으로 우리의 차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는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차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강원도, 녹차 생산단지 조성

그동안 추위 때문에 남부지방에서만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진 차가 강원도 영동지역에서도 재배될 전망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차나무를 고랭지에 심어 토사 유출 방지는 물론,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산 차 주산단지인 전라도 보성·화순, 고창 등지에서 수집해 심은 차나무 묘목 재배에 성공한 농업기술원은 차나무를 안정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강원도를 대표하는 녹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대학교수와 차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강원 차 사업단'을 발족, 2006년도까지 내한성 고품질의 차나무를 개량하고 차 생산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는 등 녹차 생산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장미향씨 <아홉번 더고> 발간



20여년 동안 차를 만들어 온 진주산업대 장미향 명예교수가 차 문화를 망라한 책 <아홉 번 더고 아홉 번 더고>를 펴냈다.

이 책은 지난 1년간 <무등일보>에 연재된 '다인이 쓰는 차 이야기'를 묶은 것으로, 차를 만드는 법과 달이는 법, 마시는 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도구의 종류와 생활 속에서 쉽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법도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지은이는 현재 순창 조지 절민공파의 종가 부편 대나무 사이에서 나는 차잎으로 무공해 죽로차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설록차 문학상' 공모

(주)태평양 설록차는 12월 20일까지 '제4회 설록차 문학상'을 공모한다. 차에 관련된 주제라면 어떤 것이라도 접수 가능하며 시조 및 동시조, 일반시, 동시 부문을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부 세 부문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백만원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수상자 발표는 2005년 1월 14일. 설록차 홈페이지(www.sullocco.kr)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유전집 교수의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2. 기원전 시대

이 시대의 차문화는 중국이 가장 앞서고 또 그 기록들도 여럿 남아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기의 기록들을 신화나 전설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차의 확실한 기록은 B.C 59년 작성된 <동자>에서부터라고 믿는다. 이때는 다(茶)라는 글자는 없었고 주로 도(荼나 명(茗))으로 기록되었으며 차가 주로 건강에 관계되는 약재로 취급되었다.

- ① 그것을 사용한 시기로 음식물을 섞거나 끓여 먹었을 개연성이 높다. 곧 마실 거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 ② 신라의 동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신라식 도기를 제작했다.
- ③ 고대신화 삼황(三皇) 중의 하나인 신농씨는 <식경(食經)>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차 기록 '동약(僮約)' 이 최초

- ④ 은 왕조의 공신 이윤은 <탕설(湯說)>에서 "맛으로 말하면 차와 같은 것이 없다(茶味不如茗)"라고 했다.
- ⑤ 주공이 썼다는 <이아>에 차의 다른 이름인 '가(賈)'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 ⑥ 제(齊)나라의 세 임금들 모신 안영(晏嬰)은 <안자춘추(晏子春秋)>를 쓴 명제상이다. "제나라 경공의 재상 영이 잠복밥과 구운 고기며 달걀 그리고 차나물도 식사를 했다." <다경>
- ⑦ 상어(相如)는 <범장편(凡將篇)>에서 차의 다른 이름인 '천(菴)'이라는 글자를 썼다.
- ⑧ 왕포는 <동약>에 "다구를 갖추어 차를 끓이고...무양에 가서 차를 사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는 노비가 해야 할 일에 차 끓이는 일과 차를 사오는 일이 들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 ⑨ <사부(詞賦)>의 작가인 양웅(B.C 53-18)이 차를 마셨다. <다경>

		기원전 시대		
		중국	일본	서양기타
신사시대	⑥6000 신석기 문화: 세석기(細石器) 제작 5000 암사동 유적 2333 단군, 아사달 도입(동국통감)	4000 암소문화 2737 신농(神農)시대③ ②2500 황하문명 1760 은 왕조 건국(이윤의 등장)④	660 야마토 정권(나라)	4500 이집트문화 4300 인더스 문화 ③3500 메소포타미아 ②2500 바빌로니아 문화
고조선시대	1122 기차 8조의 금(鬮) 1000 농경문화 시작(돌 도끼, 마제 석벽, 토기 등)① 800 고조선 수도 왕검성으로 옮김 450 부여(송화경 유역) 건국(남부지역) 건국 ④400 철기문화시대(스키타이계) ③000 원삼국의 시작 194 위만이 고조선을 빼앗다 108 위만조선 멸망	1066 주의 건국 1060 주공의 <이아(爾雅)> ⑤ 770 춘추시대 시작(주의 동천) 551 공자의 탄생 547 망명⑥ ⑥600 윤위가 노자에게 차를 대접하다 403 전국시대 시작 ④ 갈로선사 문상에서 차를 마다 221 진(秦)의 통일 206 한(漢)의 건국	고대사회	776 제1회 올림픽 557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334 알렉산더의 동진(東進)
삼국시대	57 신라 건국 37 고구려 건국 27 신라도공 일본으로 가서 도기 제작 ② 18 백제 건국(위례성)	179 사마상여⑦ 87 <사기(史記)> 완성 59 <동약(僮約)> ⑧ 53 양웅⑨	야요이시대	@로마의 지중해 지배 60 삼두정치 4 예수 그리스도 탄생

황금잉어

황금잉어(放生) - 방생이란 죽음을 직면한 산 것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살생을 금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살게 해주는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범망경(梵網經)에 '황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상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시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고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영덕려 산배 올립니다. 금일 재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하고자 뵈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룡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랜 형질도, 신이당,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른쪽실도
왕양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은을 받았다는 신이당(神異譚)이 전해오고 있다. 일부 문중에서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 파경 윤씨는 꿈에서 잉어를 살려주고 축복과 출세의 길에 열렸다고 하였으며, 평산 신씨는 잉어의 뱃속에서 신원(申願) 강군의 금(金)동공을 발견하고 조상의 살을 먹은 고귀라 하여 꺼린다고 한다. 잉어 꿈은 수매를 알리는 길몽이라 하였다. 잉어를 용종(龍種)으로 보고 입신출세를 상징한다. 잉어가 황화 상류의 풍만(風滿)의 거센 물결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등룡문(登龍門) 고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

용 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 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승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올라가기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룡문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룡한다는 전설에서 기어올라가면 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이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해져 일본에서는 남자 아이를 낳던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향호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붕위에 띄어 놓고 아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거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바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썩기모니를, 나무썩기모니를, 나무 시바산 석가모니를...

황금잉어 유통 충남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

- 크기는 15cm 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센터비용은 별도부담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나요? 차에 가까이 계시나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02-722-7777